

설교노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들어가는 말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처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들이닥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씀을 묵상합니까? 시편에는 몇 가지 유형, 장르가 있습니다.

우선 찬양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103편 같은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탄식시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처럼 신뢰시도 있습니다. 시편 전체 신뢰시는 최소 9개가 있는데,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붙잡아야 하는 시입니다.

본말

본문의 시인은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지금 이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원어를 보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하나가 아니라 산들입니다. 시인은 정확히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산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적인 환경이 든든하고 안정적이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허락하신 환경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 그 환경이 좋던지 나쁘던지 상관없이 환경 넘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도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 쓰인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맺는말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 즉 인생의 모든 여정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번 한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질문

1.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묵상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2. 나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나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수요일예배

장년 한어예배 .....	7:00PM / 본 당
장년 영어예배 .....	7:00PM / 안디옥
영아/유치부 어와나 .....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	7:00PM / 안디옥
한글학교 .....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	월-토 6:00AM / 본 당
영어부 .....	화-토 6:00AM / N-202

주일예배

장년 한어예배 1부 .....	7:40AM / 본 당
장년 영어예배 2부 .....	9:20AM / 본 당
장년 한어예배 3부 .....	11:00AM / 본 당
사랑부 예배 (장애인) .....	1:00P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	9:30AM / 나사렛
	11:00AM / 베들레헴
청년/Youth 예배 .....	11:00AM / 안디옥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데이케어 253.535.9433 | 기도원 253.847.2250



# 주일예배

- \* 경배와찬양** 1부: 455장(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배합니다”  
23장(새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3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하나님 어린양”
- 대표기도** 1부: 인숙탱 집사  
3부: 장형식 집사
- 봉헌찬양** 1부: 469장(새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3부: 성가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공동체소식** 인도자
- \* 성경말씀** 시편 121편
- 설교제목**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 응답찬송** 1,3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 수요성령예배

## 예배위원

- 찬양과기도** 수요찬양팀
- 대표기도** 봉점랭 집사
- 제목** “성령이 인도하는 회개”
- 성경말씀** 사도행전 2:37-40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이** 1부: 인숙탱 집사
- 번** 3부: 장형식 집사
- 주** 수요: 봉점랭 집사
- 다** 1부: 박종길 은퇴 안수집사
- 음** 11시 연합: 프랭크 토레스 목사
- 주** 수요: 성원로 집사

## 드러진 예물

## 공동체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수요성령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하나님의 VIP 1기 종강식: 5/1(오늘), 새가족실**
- 피어스 카운티 조찬 기도회: 5/5(목) 오전 6:45.** 타코마컨벤션센터
- 현아교육: 5/7(토) 오전 9시.** N-209. 대상: 24개월 미만의 자녀.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현아식: 5/8(주일) 11시, 연합예배 시.
- 어머니 날(5/8) 주일 예배 안내:** 1부예배(7:40AM, 한어), 연합예배(11AM, 한어/영어)
- 전도회 5월달 모임은** 어머니 날로 인하여 모이지 않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 예배: 5/15(주일)부터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 어린이 사역자와 학생부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VBS: 6/28(화) - 7/2(토).** 대상: 2018년 12월이전 출생한 어린이부터 현재 6학년  
1) 등록: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회비 납부 되어야 등록 완료) \$50(5/31까지), \$60(6/1부터)  
2) 봉사자 및 중보기도자 모집: 로비에 사인업. (문의: 남궁곤 목사)  
① 교사 ② 식사 테이블 세팅 및 주차 봉사 ③ 봉사자 자녀들을 위한 Babysitting ④ 중보기도자
-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의 기도와 도움 요청:** COVID-19으로 생명의 위협이 컸던, 직전 총회장 이성권목사님(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 담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정헌금으로 치료와 재활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역

-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증상처럼 아픈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데이케어 선생님과 쿡 하실 분(오전근무)을 구합니다. Sign on bonus \$1000과 무료 유아교육 지원함. (문의: 데이케어 박정희 디렉터)
- 현재 진행 중인 교회 보수 공사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역자 수련회: 5/2-3(월-화).** 5/3(화)은 유튜브 라이브스트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5/3(화) 새벽설교: 문창선 원로목사, 5/4(수) 새벽설교: 신영재 목사(선한이웃교회 담임)

## 교우동정

**중보:** Larry Gibbs, Floyd Richardson, Stuart Koser, Gregory Moore,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Wilbur Moore, Mike Moore, Clarence Turner, Eric Mose, William Dungey, Ken Adkins, 순천터너, 박정자, 오순자, 박지영